

말씀 /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마태복음 6장 31-33절)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뜻을 품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 가운데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큰 결핍 없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31).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33). 이것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염려 없이 살기도 쉽지 않거니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얻은 소득이나 내 삶의 결과물들은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고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당장에는 내가 힘 쓰고 애 쓰고 달려왔지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는 것에 대한 신뢰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실체와 열매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서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 나의 물질, 나의 먹고사는 것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할 힘이 생겨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섬기는 삶, 주를 섬기도록 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지라도,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는 가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가서,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도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데 힘을 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3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같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해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족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6:31-33 다같이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선포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인도자

찬 송 559장 다같이

-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